

소설 번역의 그래폴로지 문체론적 접근: 황순원의 「소나기」 번역 사례 연구*

최희경(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소설에서는 장르의 특성상 인간의 언어 사용과 관련한 모든 국면이 드러나며, 복잡한 현실, 정서, 이념, 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소설 언어로써 형상화된다. 이러한 소설 언어 속에 일관성과 규칙성을 부여하는 언어적 속성과 운용 방법을 아울러 소설 문체라고 할 수 있다(우한용, 2007, pp. 11-12). 그렇기에 소설 문체는 매우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개념이며, 학술적인 또는 비학술적인 다양한 맥락과 층위에서 논의된다. 그러다 보니 문체라는 주제로 탐구되는 학술연구에서도 문체를 언급한 의도와 초점이 불분명하거나, 문체 자체를 운용적으로 정의하지 않거나, 문체의 개념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해에 기대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설 언어가 복잡다단한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작품, 작가(번역의 경우 번역가), 장르 등 텍스트 외적인 요소 또한 전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설의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과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23S1A5A8082393). 줄고에 세심하고 유익한 논평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문체 연구는 이 모든 복잡성을 반영해 방법론을 다양화하고 초점과 방향성을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p. 7). 이를 위해 문체 연구를 큰 맥락에서부터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텍스트의 언어와 문체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인 문체론의 역사적 발전 및 분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Burke, 2023, pp. 1-3). 문체론의 기원은 고대 수사학의 규칙 중 하나인 렉시스(lexis)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명확성, 정확성, 적합성을 기준으로 언어를 다듬고 구조적, 의미적 층위에서 텍스트를 설계하며,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을 지향한다. 본격적인 학문으로서의 문체론은 과학적인 문학 연구와 시적 기능이 주된 관심사였던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문체론은 형식주의를 계승한 프라하 구조주의를 거쳐 기능주의로 전환되었으며, 텍스트뿐만 아니라 맥락과 독자를 반영한 연구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문학과 언어를 두 축으로 하는 학문으로 정립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문체론은 관심 주제와 방법론적 측면에서 더욱 폭넓게 영역을 확장해 코퍼스, 인지, 화용론, 젠더, 멀티모달, 신경과학의 접근법과도 접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전 과정은 문체론이 본질적으로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번역 문체론 또한 학제적 연구이자 문체론의 분화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역사적 관점에서는 번역 문체 연구가 문체론과 같은 궤적을 그려왔다고 할 수 있다(Boase-Beier, 2023). 이러한 문체론의 발전 과정에서 유념할 점은 텍스트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는 수사학적 전통이 여전히 문체론의 기저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다(Burke, 2023: 2).

한편 언어의 층위와 연관된 언어 연구 분야를 짚지어 제시하면서 문체 분석이 어떻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기술한 심슨(Simpson, 2004)의 설명도 도움이 된다. 그에 따르면 텍스트에서는 말의 소리(음운론과 음성론), 글의 시각적, 형태적 패턴(그래폴로지, graphology¹⁾), 단어의 구성(형태론), 구문과 문장(통사론과 문법), 단어의 형태와 속성(어휘

1) ‘graphology’는 국내 학술계에서 필적학, 필상학, 서체학 등으로 번역,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본고의 언어학적, 문체학적 맥락이 아닌 심리 및 성격 분석, 필체 분석 등의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이에 본고는 번역어 사용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어를 음역한 ‘그래폴로지’를 사용한다.

론), 단어와 문장의 의미와 쓰임(화용론과 담화 분석) 등 사실상 모든 언어 층위에서 문체가 분석될 수 있다(pp. 5-8).

그중 존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문체 연구 분야가 그래폴로지 문체론(graphological stylistics)이다. 주요 (번역) 문체론 핸드북과 개론서에서는 그래폴로지 문체론이 독립된 장이나 절로 다뤄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는 애초에 그래폴로지의 영역과 요소가 학술적으로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어가 오용된 데에 기인한다(Gomez-Jimenez, 2015, p. 72). 그러나 텍스트의 그래폴로지가 언어 층위로서 문체의 분석 단위가 되거나 그 단서가 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가령 다수의 문체 연구에서 작가의 독특한 문장구조가 자아내는 특정한 정서와 분위기를 분석하거나(Toolan, 2014, pp. 25-26), 구두점이나 대소문자의 사용 유무를 언어 규범의 이탈(deviation)이나 전경화(foregrounding)의 장치로 분석하거나(Wales, 2011, p. 32), 이탤릭체 사용으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Short, 2014, p. 358).

국내 연구에서도 그래폴로지 문체론에 대한 인식과 저변은 비슷하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제목 및 키워드 검색에서 ‘graphology’(활용형 포함), ‘필적학’, ‘필상학’, ‘서체학’ 등으로 검색한 결과에서는 주로 고문서 저자 연구나 서예 연구가 출력되었다(한국연구재단, n.d.). 다만 문체 연구, 통번역학 분류 연구 검색에서 구두점, 따옴표, 줄표, 콜론, 세미콜론 등 개별적인 그래폴로지 요소를 다룬 문체 연구는 존재하므로, 그래폴로지가 개념적 영역이 확립되지 않은 채 광의의 문체 요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텍스트에서 그래폴로지가 문체를 구성하는 언어 기본단위 중 하나이자, 분명한 연구 영역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동시에 연구의 체계적 확대를 위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본고는 소설 번역 문체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과 체계를 탐구하고 확립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그래폴로지 문체론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소설 텍스트의 번역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그래폴로지 문체의 번역이 파생하는 문학적, 미학적, 의미적 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황순원 작가의 단편소설 「소나기」와 2종의 번역본을 사례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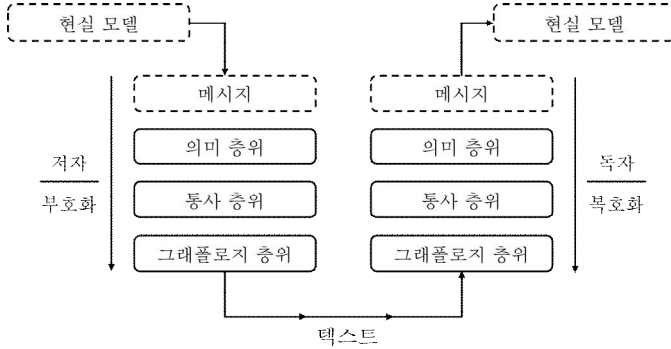
2. 그래폴로지 문체론과 번역 연구

2.1 그래폴로지 문체론(graphological stylistics)

그래폴로지(graphology)는 “그래픽 측면을 연구하는 언어의 분석 층위”다 (Gomez-Jimenez, 2015, p. 71). 원래 구어의 음운론에 대응하는 문어의 ‘문자론’이라는 의미로 매킨토시(McIntosh, 1961, p. 107, Gomez-Jimenez, 2015, p. 71에서 인용됨)가 처음 소개한 용어이며, 문자나 기호를 구성하는 자소(grapheme)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출발했다. 이후 주로 시 등의 문학 텍스트 연구에 적용되며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할리데이 등(Halliday et al., 1964, Gomez-Jimenez, 2015, p. 73에서 인용됨)은 그 개념을 확대하여 문장부호(punctuation), 철자법(orthography) 등과 함께 “언어가 시각적 자원을 사용해 문법적, 어휘적 패턴을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그래폴로지는 문법, 어휘 층위를 넘어 글쓰기나 글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제반 특징까지 연구 대상에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Wales, 2011, p. 194).

그래폴로지는 특히 문체론과 멀티모달 연구의 언어 분석 단위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폴로지 문체론은 텍스트의 시각적 요소인 그래폴로지 요소의 변칙적 사용이 어떤 의미적, 미학적 효과를 생성하는지를 연구한다(Gomez-Jimenez, 2015, p. 71). 그래폴로지 문체론의 관점에서 텍스트 생산자는 그래폴로지의 요소별 선택을 통해 면밀하게 언어 형상을 설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체적 특징을 만들어낸다. 그 선택이 설령 무의식적이거나 비의도적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시각적으로 식별되는 문체적 효과를 발휘하고 독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리치와 쇼트(Leech & Short, 2007, p. 100)는 소설과 같은 허구적 담화의 저자와 독자 간 의사소통 모델(<그림 1>)을 통해 의미, 통사, 그래폴로지의 세 언어 층위에서 문체적 선택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그래폴로지가 문학의 문체 연구에서 기본적인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래폴로지 문체론에 기반한 소설 번역 연구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그림 1
허구적 담화의 저자-독자 의사소통 모델



문체 분석 단위로서의 그레폴로지는 다양한 개별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레폴로지 문체론에서 이들 요소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그레폴로지 요소가 문체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가 그레폴로지 문체론의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메스-히메네스(Gomez-Jimenez, 2015)는 체계적인 그레폴로지 분석틀로서 레번스톤(Levenston, 1992)과 레나드(Lennard, 2005)의 두 연구를 제시하는데,²⁾ 후자의 경우 그레폴로지 요소를 시 장르에 특화해 분석하고 있으므로, 본고의 분석 대상인 소설 (번역) 텍스트에는 그레폴로지를 철자법(spelling), 문장부호(punctuation),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레이아웃(layout)의 네 영역으로 분류하고 시와 소설 등 다양한 장르와 번역의 문체까지 함께 논한 전자의 틀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레번스톤(1992, p. 2)은 문학작품의 그레폴로지 요소에 대한 비평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상세 분류와 문학작품의 예시를 통해 그레폴로지 전반의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웨일스(Wales, 2011, pp. 194-195)가 『A Dictionary of Stylistics』에서 비교적 상세히 정의한 내용에 선행연구를 더

2) 단, 레번스톤은 ‘graphic form’(1992, p. 1)과 ‘graphicology’(p. 155)를 그레폴로지 요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으며, 레나드(2005)는 ‘punctuation’을 사용했다.

해 그래폴로지의 분석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타이포그래피, 즉 글꼴의 선택과 스타일(크기, 기울임, 진하기 등)이 텍스트의 가독성, 독자의 정서적 반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뇌르고르(Nørgaard, 2009)는 단어의 의미에만 천착하는 문학 비평 경향을 비판하고 타이포그래피가 나타내는 기호학적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 문장부호, 즉 쉼표, 마침표, 느낌표, 줄표, 콜론 등의 정형적 또는 비정형적 사용을 통해 특정 효과나 독자 반응이 유발되는지 분석한다. 또한 문장부호로 구분되는 텍스트의 단위나 밀도 등도 분석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The discreet door shut — with a click.”에서 줄표는 ‘딸깍(click)’ 소리가 중요하거나 놀라운 일로 보이게 하고, 독자의 주의를 끄는 장치로 작동한다(Leech & Short, 2007, pp. 104-105).

셋째, 철자법에서 발견되는 변칙과 이탈을 관찰해 저자가 의도하는 형식적, 상징적, 비유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미국 시인 에드워드 에스틀린 커밍스(Edward Estlin Cummings)는 ‘e. e. commings’라는 필명에서 시사하듯이 대문자와 소문자를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한 단어의 철자를 행간에 나누기도 하는 등 독특한 문체적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다(Simpson, 2004, p. 54).

넷째, 텍스트의 레이아웃(구성, 배열, 배치, 여백, 정렬, 간격 등)이 독자가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독자의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는 특히 시나 시각적 서사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데, 시의 줄과 연의 단위, 산문의 단락 길이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Leech, 1980, pp. 47-48).

2.2 그래폴로지 번역 연구

전통적인 문체학자들은 문체를 언어적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여, 그래폴로지 요소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 텍스트의 독특성을 설명하고자 했다(Jones, 2014, p. 522). 번역학 연구에서도 일찍이 그래폴로지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는데, 캣포드(Catford, 1965, p. 22, Shuttleworth, 2014, p. 174에서 인용됨)는 기술적이 아닌 일반적인 번역의 의미로 ‘총체적 번역(total 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출발언어의 문법과 어휘를 도착언어의 등가적 문법과 어휘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출발언어의 음운과

그래폴로지를 도착언어의 비등가적인 음운과 그래폴로지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는 언어 간 음운 및 그래폴로지의 비등가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때 그래폴로지는 앞서 살펴본 주요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음소(phoneme)에 대응하는 자소(grapheme)를 의미한다. 또한 그래폴로지 요소가 번역의 핵심적, 선택적 영역이 아닌 부차적, 종속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폴로지를 체계적으로 개괄한 레벤스틴(1992, pp. 129-130)은 이보다 진전된 관점을 보이며 번역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그래픽 장치가 독특하게 사용된 작품에서 이 요소들을 번역 시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원문에 그래픽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번역에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문법이나 어휘 규범의 일탈이 그래픽 규범의 일탈로 표현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는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이 언어 간 그래폴로지 유사성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또한 대규모 자료를 통해 그래픽 장치의 번역 가능성을 연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여러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번역학 연구에서 그래폴로지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부족하다는 점은 사실이나 최근의 경험적 연구는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있다 (Rodríguez-Castro, 2011). 스페슈니코바와 세르노바(Sveshnikova & Sernova, 2021)는 문장부호가 시의 구조와 억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의미적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또 번역가는 원문의 문장 부호를 유지할지 도착언어의 관습에 맞게 조정할지를 선택해야 하며, 그 결과가 텍스트의 의미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로드리게스-카스트로(Rodríguez-Castro, 2011)는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된 신문 기사 분석에서, 출발언어의 그래폴로지 관습이 번역된 텍스트에 그대로 잔존하여 도착언어의 관습에 어긋나는 현상을 일종의 번역투(translationese)로 보고, 번역자가 원문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착언어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한다. 쇼프(Schopp, 2008)는 글꼴과 같은 타이포그래피가 언어와 문화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는 기호학적 현상이며, 이를 통한 텍스트의 시각적 설계는 독자의 수용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판 번역 등의 번역 수행과 번역가 교육에서 타이포그래피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그래폴로지 개별 요소에 대한 번역 중심의 접근을 보여주며, 그래폴로지 요소가 번역의 문체적 효과와 독자의 수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 번역학에서도 문장부호³⁾ 연구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부터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다. 주로 비문학 텍스트의 문장부호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연구되고 있는데, 텍스트의 종류는 다양해 뉴스기사 제목(최경희, 2022), 수능교재(김지영, 2020), 영화 자막 번역(이주은, 2019), 학생 번역문(한현희, 2017) 등에서 문장부호 번역의 전략, 양상, 오류, 교육 등이 분석되었다. 그중 김지영(2020)은 문장부호의 문장 분할 패턴을 분석하여 그래폴로지 영역 중 텍스트 레이아웃을 일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주은(2019)은 블록버스터 영화 자막 번역 사례를 통해 문장부호의 표현력과 텍스트 길이의 시각적 효과를 논함으로써 텍스트 수용의 관점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본고의 초점인 소설의 번역과 번역 문체적 관점의 그래폴로지 선행연구는 특히 드문데, 김도훈(2011)과 이상빈(2021)의 연구에서 비슷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김도훈(2011)은 기본적으로 문장부호 중 세미콜론에 초점을 두고 세미콜론의 세부적 기능과 번역 전략을 제시한 연구지만, 다양한 문학작품, 그중에서도 소설의 예시를 통해 문장부호의 번역에 따른 의미적, 기능적 효과를 상세히 논했다는 점에서 유의하다. 이상빈(2021)은 한 번역가의 여러 번역 작품에 나타난 일련의 문체표지를 고찰하고 해당 번역가의 문체적 특징을 기초로 한국문학 번역가들에게 교훈을 제시했는데, 분석의 일부로 문장부호의 번역 사례를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본격적인 그래폴로지 문체 연구로 보기에는 분석의 초점, 체계, 범위가 제한적이다.

3) KCI 인문학>통역번역학 분류에서 그래폴로지의 하위 연관 검색어인 ‘문장부호’, ‘구두점’, ‘punctuation’ 등으로 확인하였다(한국연구재단, n.d.). 서론에서 밝혔듯이 그래폴로지 요소에 대한 더 포괄적인 키워드 검색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분석 텍스트 및 분석 방법

3.1 분석 텍스트 선정

소설 번역의 그래폴로지 문체 분석을 위한 사례 텍스트로는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와 그 영역본 2종을 선정했다. 「소나기」는 한국에서 별도의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소나기」는 황순원의 고유한 서정적 문체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이 작품의 선행연구에서 특히 그래폴로지 요소가 자주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황순원은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소나기」에서는 조사 생략, 체언 종결, 일어문(一語文) 등의 사용으로 세련된 시적 문체를 구사한다(이용남, 1996, pp. 431-432). 거기에 군더더기 없는 짧은 문장을 주로 사용하고, 긴 서술체 문장을 쓰는 경우 구두점을 이용해 연결하는 특징을 보인다(p. 441). 논리적 간격이 아니라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단락을 만들거나 일문일단락을 사용하는 특징도 자주 언급된다(한미애, 2010, p. 294). 또한 인물의 발화와 생각에 따옴표 사용 유무를 달리 적용해 화법에 변이를 일으킴으로써 인물의 심리와 내면을 투영하기도 한다(김남영, 2003, pp. 72-73). 이와 같이 「소나기」는 그래폴로지 요소가 풍부하고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문체 요소와 유기적인 짜임을 구성하고 있어 그래폴로지 요소의 문체적 효과를 논하는 데 적합하다. 둘째, 「소나기」는 여러 명의 번역가가 번역하였으므로, 원문에서 논의된 그래폴로지 문체 특징이 복수의 번역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래폴로지 번역 연구가 어떤 학술적 함의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나기」 원문(이하 ST)과 번역가 장왕록(Chang Wang-rok)의 「Shower」(이하 TT_Chang), 에드워드 포이트라스(Edward Poitras)의 「The Cloudburst」(이하 TT_Poitras) 등 2종의 번역본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⁴⁾ 두 번역가는 모두 시, 소설 등 다양한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다수의 번역

4) 장왕록의 번역은 1995년, 포이트라스의 번역은 1980년, 2015년, 2020년에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본고에서 포이트라스 번역은 2020년 출판본을 사용한다.

상을 수상한 저명한 번역가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장왕록은 한국에서 태어나 석사까지 마친 후 미국 유학을 다녀온 아웃바운드 번역가의 배경을 지녔고, 포이트라스는 미국 출생의 영어 원어민 번역가이지만 한국어 작품을 창작할 정도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조예가 깊다. 언어문화적 배경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 번역가 모두 한국어와 영어 둘 다에 정통하다고 볼 수 있다.

3.2 분석 방법

본고는 사례 텍스트에 대한 그래폴로지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소설 번역의 문체적 특징과 효과를 분석하고 그래폴로지 문체론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1에 제시한 네 개의 영역을 분석틀의 토대로 하되, 영역별 분석은 「소나기」에 대한 선행연구와 면밀한 읽기(close reading)를 통해 선별한 저자와 번역가의 특징적 그래폴로지 요소에 대해 실행한다. 주로 예시를 통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되, 필요시 빈도 등 양적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2.1의 그래폴로지 영역에 따른 분석 요소의 예시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그래폴로지 분석 영역 및 요소

그래폴로지 영역	그래폴로지 요소 예시	분석 여부
타이포그래피	서체, 크기, 색상, 진하기, 이탤릭체 등	O
문장부호	마침표, 따옴표, 줄임표, 줄표 등	O
철자법	철자 변칙, 대문자 사용, 표기법 등	X
레이아웃	문장/단락 길이, 배치, 정렬, 간격 등	O

본고에서는 <표 1>의 분석 영역에 따라 ST와 두 TT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다. 단, 다음 고려사항을 확인한 후 최종 분석 요소를 정한다. 첫째, 작가와 번역가가 특정 그래폴로지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텍스트와 같이 인쇄 출판물인 경우, 작가와 번역가가 그래폴로지 요소가 가지는 시각적, 관습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폴로지 요소를 텍스트

에 의도적으로 실현하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출판물 제작 과정에서 사실상 개입하기 어려운 그래플로지 영역이 있다. 특히 「소나기」와 같은 짧은 단편들이 선집으로 출판되는 경우 단편소설 한 편마다 미치는 작가나 번역가의 영향은 더욱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cf. Schopp, 2008; Short, 2014, p. 354).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가와 번역가의 의도와 선택이 드러난다고 판단되는 그래플로지 요소에 분석의 주안점을 둔다. 둘째, 작가와 번역가의 선택이 독자의 수용과 문체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그래플로지 요소를 우선 고려한다. 가령 「소나기」에 등장하는 인명의 영어 표기법, 대문자 사용, 영국식/미국식 철자법 등의 경우 극소수의 사례만 관찰되며, 두 번역본이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되어 번역본 간 그래플로지 문체 차이가 독자에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본고는 최종적으로 그래플로지 영역 중 철자법을 제외한 타이포그래피, 문장부호, 레이아웃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한다.

4. 분석 결과

4.1 타이포그래피

4.1.1 이탤릭체(italics)와 시점 표현

타이포그래피는 글꼴 유형과 크기, 기울임, 진하기 등 문자의 시각적 표현을 다루는 영역이다. 본고 분석 대상의 경우 출판물이기 때문에 작가와 번역가 외에도 그 제작 과정이 타이포그래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Schopp, 2008). 분석 사례 원문과 두 번역본은 모두 선집에 수록되어 일정 지면을 할당받았으므로, 「소나기」만의 고유한 타이포그래피가 형성되기 힘든 여건이다. 그럼에도 분석 텍스트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두 번역에서 번역가 개인의 타이포그래피 선택으로 판단되는 이탤릭체 사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예시 1>은 TT_Poitras의 이탤릭체 사용 부분을 세 텍스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예시 1>

ST: 소년은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했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⁵⁾

TT_Chang: He cupped his hands and tried to scoop the image up again and again until he felt someone approaching. He stood up, surprised. It was her, coming across the stream. She must have been hiding and watching.

TT_Poitras: The boy churned the face in the water with both hands. He repeated this several times. Then suddenly he started and stood straight up. Wasn't that the girl coming his way? She was hiding and watching what I was doing!⁶⁾

「소나기」는 3인칭 제한적 시점으로 서술되지만, 초점화자(focalizer)⁷⁾인 주인공 소년의 눈을 통해 전개와 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시점과 화법에 변이가 발생하는 특징이 나타난다(권영민, 2006, p. 246). 이와 관련해 <예시 1>에서 밑줄로 강조된 두 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T를 보면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는 서술자가 전달하지만 시점이 소년으로 이동하며 자유간접화법으로 전달된다. 소년이 소녀가 가까이 오는 모습을 목격하는 초점화자가 되면서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소년의 내면 심리가 따옴표 없는 내적 독백으로 제시된다. 원문 독자는 두 문장 전후로 시각적 차이가 없는 텍스트를 읽으며 서술자의 관찰과 인물 내면

5) 시각적 문체 효과 검토가 특히 중요한 레이아웃 분석 소절(4.3)은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캡처해 그림으로 예시를 제시하고, 그 외 예시의 레이아웃은 공간의 절약을 위해 문장과 단락을 연결하여 제시한다. 단, 레이아웃 외 그래폴로지 요소는 각 텍스트에 사용된 그대로 옮긴다.

6) 2015년 영한대역본으로 출판된 포이트라스의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큰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발화로 번역되었고, <예시 2>의 이탤릭체 부분도 동일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번역가가 2020년 출판 시 오류를 인지하고 그래폴로지를 자가수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7) 초점화자(focalizer)란 서술자(narrator) 개념과는 별도로 사건을 ‘보는 자’를 가리킨다. 이는 서술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1인칭 서술자는 서술자이면서 초점화자일 수 있지만, 자유간접화법에서는 인물의 목소리가 서술자를 통해 매개되더라도 초점화자는 여전히 인물이다(Walcs, 2011, p. 164).

을 오가는 동안 더욱 주의를 집중해서 읽게 된다.

번역을 살펴보면, TT_Chang의 두 문장에서 초점화자는 소년으로 이동했으나 두 번째 밑줄 문장에서 ST의 1인칭 대명사가 사라짐으로써 소년의 내적 독백은 3인칭 서술자의 전지성을 통해 자유간접화법으로 전달된다. 이에 비해 TT_Poitras는 두 번째 밑줄 문장의 초점화자인 소년의 내면 심리를 이탤릭체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독자는 이탤릭체의 시각적 인식을 통해 시점의 변화를 기민하게 알아챌 수 있으며, 독자의 읽기는 수월해진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탤릭체로써 내면 심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독자가 적극 개입하여 내면을 고찰할 필요성은 약해진다는 것이다. 「소나기」의 문체 특징이 3인칭 시점으로 서술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인물의 내면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초점화자를 통한 제한적 정보로써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문화라, 2002, pp. 66-69), TT_Poitras는 이탤릭체라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원문과 차별화된 문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독자의 수용과 참여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아래 <예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시 2>

ST: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뵈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TT_Chang⁸⁾: The startled sparrows flew away. The boy suddenly remembered that he was supposed to have gone straight home to do his chore of chasing away sparrows in the rice paddies near there.

TT_Poitras: The boy shook the straw ropes holding it up. Some sparrows flew away. He thought, *Oh, I really ought to go home early today and keep the sparrows out of the field next to the house.*

ST에서는 참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소년에게로 시점이 이동하면서, 소년의 내적 독백이 3인칭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다.

8) TT_Chang에서 ST의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부분이 오역임이 확인되어 예문에서 제외했으나 ST와 TT_Poitras의 해당 부분은 맥락을 전달하기 위해 유지하였다.

TT_Chang에서는 이 부분이 3인칭 전지적 서술자의 간접화법으로 전환되고 초점화자도 분명하지 않은 등 시점 이동이 모호해진다. TT_Poitras에서는 원문의 시점 이동과 내적 독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탤릭체가 인물의 심리를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는 문체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4.1.2 이탤릭체와 고유어 표현

황순원은 한국의 고유어를 즐겨 사용한다. 「소나기」에서도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향토적인 색채를 만들어내며 서정성을 환기한다. 특히 갈꽃, 마타리꽃, 메밀꽃, 등꽃, 억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 같은 자연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명칭은 대부분 한국 고유어로 되어 있다. 한국인의 토속적인 삶에 밀착된 자연물의 명칭이 자아내는 정서를 번역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애초에 작가가 쓴 명칭이 과학적인 분류에서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역가는 아래의 <예시 3>과 같이 원문에 등장한 꽃 이름에 대해 동일하거나(bush clover), 비슷하거나(daisy와 wild chrysanthemums), 속성이 상당히 다른(bellflowers와 bluebells, matari와 wild parsley) 번역어를 선택하는데, 특이하게도 이탤릭체를 사용한 예시가 TT_Chang에서 발견된다.

<예시 3>

ST: “이게 들국화, 이게 싸리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근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TT_Chang: ‘This is a daisy,’ he started, ‘and this one is a bush clover, and these are bellflowers.’ ‘I didn’t know that bellflowers were so pretty,’ the girl said admiringly. ‘I like the purple ones better than the white ones. And what is the name of this yellow flower that looks like a tiny umbrella?’ ‘It’s called matari.’ the boy replied.

TT_Poitras: “These are wild chrysanthemums, these are bush clover, these are bluebells.” “I didn’t know bluebells were so pretty. I like purple anyway. Then what are those yellow flowers that look like parasols?” “Wild parsley.”

TT_Chang에서 이탤릭체는 단 한 번 사용되었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더욱 전경화된다. 꽃 이름 중 하나인 마타리꽃에 다른 꽃과 달리 이탤릭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식물도감⁹⁾에 따르면, 마타리는 동아시아 및 시베리아 지역에 분포하는 야생화이며 영문명은 ‘golden lace’로 확인된다. 번역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타리(꽃)를 그대로 음역하였는데, 이는 소녀가 관심을 표하며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기에 이탤릭체를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소녀의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란 말에서 단서가 주어졌으므로 독자에게 마타리꽃은 그런 이미지로 수용될 것이다. 이는 서정성의 요소로 색채 표현을 중시한 「소나기」의 문체적 특징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이기도 하다(이용남, 1996, pp. 429-430). 반면 TT_Poitras는 하얀색인 ‘wild parsley’를 번역어로 선택하여 전후 문장 간 색채 이미지의 정합성을 위배한 결과를 낳았다.

TT_Poitras는 4.1.1에서 살펴본 대로 초점화자의 내적 독백을 표현하기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시카고대학교 출판부(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d.)에 따르면 영어에서 이탤릭체는 주변 텍스트와 구별됨을 표시하거나 강조를 위해 사용하며, 남용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 문장이나 단락을 온전히 이탤릭체로 강조하는 일을 지양하도록 권고한다. 그런 만큼 두 번역가가 이탤릭체를 필요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탤릭체는 특별한 용도와 기능을 위해 사용되므로 번역가별로 독자에게 상이한 문체적 효과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4.2 문장부호

문장 부호는 글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멈추는 용도 또는 어조를 보충해 이해시키는 용도로 글쓴이가 독자에게 신호를 주는 수단이다. 또한 문장에 강조와 리듬을 더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수사학적 장치다(Gamer, 2016, pp. 747-748). 따라서 문장부호는 글쓰기 규칙이라는 기술적 영역을 넘어 작가의 문학적, 정서적 의도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독자의 수용

9) 국립수목원이 제공하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다(국립수목원, n.d.).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언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소설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장부호는 영어를 기준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Garner, 2016; Swan, 2016).¹⁰⁾

표 2
문장부호의 분류, 예시 및 분석 대상

분류	예시	분석 대상
끝맺음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느낌표
휴지	쉼표, 콜론, 세미콜론, 줄임표	쉼표, 줄임표
따옴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강조/설명	줄표, 하이픈, 괄호	줄표, 하이픈

<표 2>의 분석 대상 중 마침표와 쉼표는 문장길이의 연계되므로 범주를 달리해 텍스트 레이아웃 소설(4.3)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며, 본 절에서는 느낌표, 줄임표, 따옴표, 줄표 및 하이픈을 차례로 분석한다.

4.2.1 느낌표

느낌표는 ST에서 4회, TT_Chang에서 10회, TT_Poitras에서 19회 사용되었다. 느낌표가 특별히 강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는 일반적인 용법

10) 동일한 형태의 문장부호라도 언어별 기능과 용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각 분석 소설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문장부호에 대해 참고문헌을 토대로 기능과 용법을 밝힌다. 용어의 일관된 전달을 위해 원문과 번역본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장부호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국어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줄표의 경우 한국어 줄표는 기능과 용법에서 영어의 엠대시(em-dash), 즉 ‘긴 줄표’와 유사하다. 영어의 엔대시(en-dash), 즉 ‘짧은 줄표’는 본고의 분석 텍스트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줄표라 함은 한국어의 줄표와 영어의 긴 줄표를 함께 지칭한다. 그러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어식 문장부호의 경우에는 영어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두 번역본에 사용된 하이픈(hyphen)은 한국어의 붙임표와 기능이 다르므로 영어 표현을 채택한다(국립국어원, 2014, pp. 31-32; Garner, 2016, pp. 750-752).

에 비춰 본다면,¹¹⁾ TT_Poitras에서는 느낌표를 수단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정서를 강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 <예시 4>를 살펴보자.

<예시 4>

ST: 다 건너가더니 핵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중략)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TT_Chang: She then turned toward the boy and threw the stone in his direction, shouting, ‘You silly boy!’ (중략) He seemed to hear her shouting, ‘You silly boy! You silly boy!’

TT_Poitras: As soon as she was all the way across, she spun around, and facing the stream she said, “Dummy!” (중략) It seemed as though he could hear “Dummy! Dummy!” following him as he ran.

<예시 4>는 소년과 소녀가 며칠간 마주친 끝에 소녀가 처음으로 말 한마디를 던지는 장면과 이후 소년이 소녀의 말을 자기도 모르게 떠올리는 장면이다. 원문의 문장에서 느낌표는 사용되지 않았다. 소년과 소녀는 며칠간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차츰 의식하게 되는데, 소년이 말 걸어주기를 기다렸을 소녀는 ‘바보’라는 말을 뱉고 달려가 버린다. 소녀가 낯선 시골에서 만난 반가운 또래에게 결국 말을 건네게 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놀람, 강렬한 감정, 발랄함 등이라기보다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데 대한 투정 섞인 수줍음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소년이 떠올린 소녀의 말에서도 느낌표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소년에게도 같은 인상을 남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역에서는 모두 세 군데에서 느낌표가 사용되어 소녀의 성격화(characterization)가 다소 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원문에서 4회의 느낌표 중 3회는 소녀의 발화, 1회는 소년의 발화에서 사용되었는데, 줄을 흔들며 ‘재밌다!’라고 하거나, 풍경을 보고 ‘야!’라고 감탄하는 등 실제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TT_Chang에서는 <예시 5>처럼 두 인물의 대화가 처음 시작되는 어색한 시

11)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쓰거나,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낼 때,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쓴다(국립국어원, 2014, pp. 19-20).

점이거나 <예시 6>처럼 소년의 아버지가 소녀의 죽음에 절제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 맥락에 비해 인물의 감정이 다소 과장되게 전달된다.

<예시 5>

ST: “애,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두 참 곱다.”

TT_Chang: ‘Say, what’s the name of this shell?’ she asked, catching up with him. He turned around in spite of himself. His eyes met hers. They were clear and dark-brown. He quickly glanced at the thing in her palm. ‘Silk clam.’ ‘What a pretty name!’

<예시 6>

ST: “히, 참, 세상일두...”

TT_Chang: ‘What a terrible thing to happen!’

한편 TT_Poitras 또한 소년과 소녀의 발화 모두에서 원문에 비해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다. <예시 7>의 발에서 뽑은 무를 먹어보다가 맛이 없어 뱉는 장면에서 소녀의 발화는 ‘Oh’, ‘too hot’, ‘stinks’ 등의 어휘와 함께 느낌표가 쓰여 강렬한 감정을 표출한다. 소설 전반에서 내향적으로 묘사되는 소년의 발화 또한 ‘awful’과 함께 느낌표가 쓰이며 감정을 이례적으로 표현한다.

<예시 7>

ST: 소녀도 따라 했다.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아, 맵고 지려.”하며 집어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뽕개쳐 버렸다.

TT_Poitras: The girl did the same. By the third bite, though, she said, “Oh, it’s too hot, and it stinks!” She spat it out and threw the rest away. “It tastes awful! I can’t eat it.” He flung his radish even farther away.

<예시 8>

ST: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치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사랑스러웠다.

TT_Postras: The girl's white face, pink sweater, dark blue skirt, and the flowers she was holding in her arms all swirled into one blur. It looked like one great bunch of flowers. Oh, I m dizzy!¹²⁾ But he didn't want to get off. He was feeling proud of himself.

<예시 8>을 보면 소년은 소녀 앞에서 송아지를 타고 돌며 스스로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 장면은 황순원 특유의 서정적 이미지화를 통해 다소 몽환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번역에서는 이때의 감정이 감탄사와 느낌표를 통해 신나는 ‘놀이’처럼 보이는 효과를 준다. 소설 전반에서 소년의 내면 심리는 내적 독백을 통해 절제된 언어로 전달되고, 이는 작가가 서정성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이용남, 1996), 작가의 문학적 의도가 번역가의 그래폴로지 문체로 인해 독자에게 변이되어 전달될 수 있다.

4.2.2 줄임표 분석

한국어에서 줄임표는 말을 줄이거나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문장이나 글을 생략할 때,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가운데 여섯 점이 원칙이나 세 점도 허용되며 아래에 찍는 것도 허용된다(국립국어원, 2014, pp. 34-35).¹³⁾ 영어에서는 ‘ellipsis dots’ 또는 ‘period dots’로 부르며 아래에 세 점을 찍는다. 주로 인용문에서 생략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Gamer, 2016, p. 750). 결국 담화에서 생략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 언어의 문장부호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한국어 정의에서 시사하듯이 소설에서 이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인물의 성격이나 발화 습관, 발화 상황을 묘사할 수 있고 생략된 내용을 유추하도록 독자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황순원은 원문에서 가운데 세 점을 찍어 줄임표를 포기하였으며 인물의 발화에서만 총 13회를 사용하였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된 인물은 소녀(6회)였고, 소년의 부모(6회), 소년(1회)이 뒤를 이었다. <예시 9>는 소녀의 발화에 사용된

12) 이탤릭체는 포이트라스 번역본에서 그대로 옮겼으며, 이와 관련해 4.1.1의 이탤릭체 분석에서 논한 바 있다.

13) 종전 규정에서 더 허용적으로 변경되었다(국립국어원, 2014, p. 15).

줄임표의 예시다.

<예시 9>¹⁴⁾

ST: “인제 다 낫냐?” “아직두...” “그럼 누워 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그날 참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TT_Chang: ‘Are you all right now?’ She shook her head. ‘Not quite yet.’ ‘Why, then, you should be in bed, shouldn’t you?’ ‘But it’s boring staying home so long. So I came out... What fun it was that day, though.’ She looked down at her pink sweater and said, ‘I don’t know where I got this. This spot doesn’t seem to want to come off.’

TT_Poitras: “Are you all better now?” “Well, I’m still...” she trailed off and did not finish. “Then you ought to be lying down and resting.” “I came out because I was so bored. Oh, that day was so much fun! You know, I got a stain on my clothes that won’t come out.”

소녀의 발화는 소년과 소녀가 즐거운 나들이를 하면서 소나기를 만난 후 소녀의 병세가 악화해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조우하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줄임표는 <예시 9>의 발화 이전에 텍스트 전반부 소녀의 발화에서 한 차례 사용된 적이 있으나, 단순히 발화 중간의 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시 9>의 발화부터 줄임표는 소녀가 활기를 잃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원문의 세 줄임표 중 첫 번째는 ‘아프다’는 말을 대놓고 하고 싶지 않은 속상함, 두 번째, 세 번째 줄임표는 머뭇거리면서도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려는 소녀의 심정을 나타낸다. 위의 예시 이후로 소녀는 ‘제사’, ‘이사’ 등 부정적 분위기의 발화에서 줄임표를 사용한다.

그 분위기는 소설의 말미까지 이어져, 소년의 부모가 소녀 집안의 몰락과 소녀의 죽음에 관해 대화하면서 말을 멈추거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할 때 줄임표를 쓴다. 소녀와 관련된 정보가 소년의 시점에서 제한되어 있다가 소설 말미에 이르러서야 소녀의 죽음이 현현(顯現, epiphany)하고(문화라, 2002, p. 89), 소년의 부모가 그 전말을 휴지와 생략을 더해 전달하고 있기

14) 줄임표 표기는 띄어쓰기와 점의 위치를 포함해 각 텍스트에 표기된 그대로를 옮긴 것이므로 텍스트 간에 차이가 있다.

때문에(<예시 10> 참고) 비극적인 결말이 독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런데 번역에서는 줄임표가 애초에 TT_Chang 2회, TT_Poitras 2회 밖에 사용되지 않아 소설 전개에 따른 정서적 흐름과 결말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시각적으로도 두 번역의 문체는 줄임표의 멈춤과 생략 효과 없이 상대적으로 더 단조롭고 평이하게 보이고, 독자는 무난하게 마지막 온점까지 읽어 내려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번역에서는 인물의 경험이 현재의 한 순간에 집약되고 내면화되는 과정, 즉 서정성의 본질이 생략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p. 90).

4.2.3 따옴표 분석

따옴표에서 관찰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직접 발화에 사용된 따옴표의 종류다. 우선 ST는 직접화법에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있고, TT_Chang은 작은따옴표를, TT_Poitras는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직접 발화를 표시할 때나 직접 인용을 할 때 큰따옴표를 쓴다. 작은따옴표는 인용 안의 인용을 표시하거나 마음속 말을 적을 때, 그리고 특정 부분을 강조할 때 쓴다(국립국어원, 2014, p. 27). 그러나 이 규범은 언어별로 달라지기도 한다. 직접 발화에 국한해 살펴보면 영국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은따옴표가 사용되고, 대화 안에서 다시 인용할 경우 큰따옴표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영어는 정반대의 관습을 가지고 있다(Gamer, 2016, pp. 752-753). 이를 염두에 두고 <예시 10>을 살펴보자.

<예시 10>

ST: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두 변변히 못 써봤다 드군. (중략) ...그런데 참 이번 기집에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 든 옷을 꼭 그대루 입혀서 묻어달라구...”

TT_Chang: ‘They say that the girl had been sick for quite a few days, but the family couldn’t afford to give her the medical care she needed. (중략) But you know, she must’ve been an extraordinary girl – she said, just before she died, “When I die, please bury me in the clothes I’m wearing

now.”¹⁵⁾

TT_Poitras: “With this child the sickness lasted a long time, and I hear they couldn’t afford to give her the right medicine. (중략) This girl seemed to have been precocious for her age, though. You know, she said that if she died she wanted them to bury her just as she was, right in the clothes she was wearing.”

TT_Chang과 TT_Poitras는 각각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관습을 따르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번역가 장왕록과 포이트라스는 앞서 소개했듯이 모두 미국식 영어에 익숙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TT_Chang의 따옴표 사용은 일견 의아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번역을 출판한 키건 폴 인터내셔널(Kegan Paul International)이 영국에 본사를 두었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확인된다. 출판 전통에 따라서는 따옴표 없이 또는 문두에 줄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직접화법을 표시하기도 한다(Short, 2014, p. 354). 따라서 TT_Chang의 따옴표 사용으로 비롯된 문체는 출판 제작 과정에 기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번역의 목표 독자가 누구인지, 목표 언어문화의 그레폴로지 규범이 어떠한지를 번역가가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번역가는 출판 과정에서 자신이 적용한 그레폴로지 특징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효과를 파생할지 예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출판 번역 작업에서도 목표 독자가 원문의 규범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문학적, 미학적, 의미적 가치가 있는지를 숙고하여 그레폴로지 문체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4.2.4 줄표와 하이픈

「소나기」의 원문에는 줄표와 붙임표(형태적으로 영어의 하이픈)가 사용되지 않았다. 한국어에서 줄표는 제목 뒤 부제의 앞뒤에 쓰고, 붙임표는 ‘도움닫기-도약-공중자세-착지’처럼 단계별 내용을 표시하거나 ‘원-달러 환율’과

15) TT_Chang에 표기된 그대로 두 따옴표 간에는 가독성 향상을 위한 공백이 있다. 통상 영국식으로는 안긴 인용문의 마침표가 따옴표의 바깥에 와야 하지만, 여기서는 미국식 방식으로 안쪽에 적용되었다(Garner, 2016, p. 753).

같이 어구 간 밀접한 관련을 표시하는 데 쓰기 때문에(국립국어원, 2014, pp. 31-32), 부호의 기본적인 용법이 소설 언어의 맥락과 서술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영어는 두 부호를 소설 언어에서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주 쓰는 게 권장되지는 않는다. 영어의 줄표는 “글의 종류에 상관 없이” 쉼표를 대신해 문장을 가지적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활기 잃은 문장을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으며, 강조나 추가 설명 등의 기능을 하므로(Garner, 2016, p. 750) 적재적소에 쓰면 도움이 된다. 이에 비해 하이픈은 단어와 단어, 단어와 접사 등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데, 미국영어는 영국영어에 비해 하이픈 사용에 덜 관대하며 하이픈의 지나친 사용이 글의 완성도를 낮춘다고 평가한다(pp. 751-752). 이와 같은 인식은 독자에게도 공유되어 있으므로 번역가가 해당 부호를 구사할 때 이 점을 이해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 번역에서는 원문과 달리 줄표와 하이픈이 사용되었다. 줄표는 아래 <예시 11>에서 <예시 13>까지와 같이 TT_Chang에서만 3회 사용되었다.

<예시 11>

ST: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음 같다.

TT_Chang: As it kept on circling, the white face of the girl, her pink sweater and dark blue skirt, the spray of wildflowers in her hands — all suddenly blurred into one whirling multi-coloured circle.

<예시 12>

ST: “그 동안 앓았다.” 어쩐지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TT_Chang: ‘I’ve been ill,’ she said. She did look ill — pale and thinner.

<예시 13>

ST: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써 봤다 더군. (중략)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 든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물어달라구...”

TT_Chang: ‘They say that the girl had been sick for quite a few days, but the family couldn’t afford to give her the medical care she needed. (중략) But you know, she must’ve been an extraordinary girl — she said, just

before she died, “When I die, please bury me in the clothes I’m wearing now.” ’

TT_Chang의 줄표 사용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일반적인 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예시 13>의 밑줄 친 문장과 줄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녀의 유언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긴 문장이며 인용문이 안겨 있기 때문에 따옴표가 중첩된 문장이다. 앞선 <예시 10>의 같은 문장에 대한 TT_Poitras와 비교해 보면 문장부호와 통사구조가 복잡한 인상을 주며, 이는 독자의 가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소 간 조화를 고려한 그래폴로지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하이픈은 두 번역에서 다수 사용되었는데,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픈의 용법은 유사하나 빈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3
두 TT의 하이픈 사용

TT_Chang	TT_Poitras
great-grandchild	great-granddaughter
great-grandfather	great-great-grandfather
flower-like (seed)	great-grandchild
pinkish-white (flowers)	deep-blue (dome)
dark-brown	stepping-stones
dark-brown (smudge)	second-cropped
pinkish-violet (flowers)	rain-soaked (body)
multi-coloured (circle)	rolled-up (shorts)
musk-melons	three-quarter (moon)
maple-and-pine-covered (hill)	
flower-vines	
nose-ring	
straw-thatched (roof)	
piggy-back	
fifth-grade (girls)	
hard-pressed	
grown-ups	
three-quarter (moon)	
straw-mesh (bag)	

참고로 미국영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형용사(phrasal adjectives)¹⁶⁾를 만들 때 외에는 하이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Garner, 2016, p. 752). 미국인 번역가인 포이트라스는 TT_Poitras에서 구형용사 용도 외 하이픈을 최소한으로 사용했다. 반면 아웃바운드 번역가인 장왕록은 포이트라스에 비해 하이픈을 2배 이상 자주 사용했으며, 원문의 색채 표현 형용사를 구형용사로 표현하거나 명사와 명사를 결합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이는 TT_Chang이 출판된 영국에서 하이픈 사용이 상대적으로 더 허용적이어서라기보다, 수식을 위한 통사적 구조를 축약하면서도 원문의 뜻을 온전히 담고자 하는 번역가의 전략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이픈의 빈번한 사용은 가독성이 저하되고 어휘적 복잡성이 가중되는 문체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4.3 텍스트 레이아웃

텍스트 레이아웃은 독자가 텍스트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장르의 전형적인 텍스트 레이아웃을 인식하고 있는 독자들은 텍스트상 여백, 간격, 단락 구성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장르별로 정해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Levenston, 1992, p. 108). 황순원의 문학적 출발이 서정시였고 초기 단편인 「소나기」 또한 시적 서정성과 간결성을 특유의 문체로 드러내고 있는 만큼(임중수, 2000, p. 159), 번역에서 레이아웃을 통한 시적 문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이를 문장과 문단의 레이아웃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4.3.1 문장 레이아웃

문화라(2002)는 「소나기」의 문장 레이아웃이 짧은 문장, 도치법, 서술어의 생략 등을 통해 나타나며, 작가가 이러한 레이아웃을 통해 음악적 효과와 정서적 환기 효과를 도모한다고 주장한다(p. 59). 이를 참고하여 먼저 원문과 두 번역의 문장길이에 영향을 주는 마침표, 쉼표, 기타 종결부호(느낌표 및 물음표)의 빈도 및 평균문장길이를 <표 4>에 정리하고 논의를 진행한

16) <표 3>에서 구형용사의 경우 수식된 명사를 괄호에 표시하였다.

다.17)

표 4
종결부호 및 쉼표의 빈도와 평균문장길이

텍스트	마침표	쉼표	기타	문장수	단어수	평균문장길이
ST	311	119	20	331	2,009	6.07
TT_Chang	291	203	29	320	4,004	12.51
TT_Poitrás	295	161	39	334	3,973	11.90

<표 4>의 결과에서 마침표와 기타 종결부호를 합하면 문장수로 치환된다. ST의 평균 문장당 단어수가 6.07단어인 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간결한 문체 특징을 잘 보여준다(이용남, 1996; 임종수, 2000; 최희경, 2023).¹⁸⁾ 영어로 동등한 비교가 가능한 두 TT를 보면, 단어수가 더 많은 TT_Chang에서 마침표를 포함해 더 적은 종결부호가 사용되었고, 결과적으로 TT_Chang이 TT_Poitrás에 비해 문장당 평균 0.61단어가 길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문장부호로 TT_Chang에서 빈도가 훨씬 높은 쉼표 사용을 들 수 있다.

<예시 14>

ST: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TT_Chang: Until the previous day she had always squatted at the edge of the brook, but today she was squatting on one of the stepping stones, near

17) <표 4>의 통계량을 구할 때 코퍼스 분석도구(파이썬 포함)마다 내부 산출 기준에 차이가 있어 통계량이 달라졌다. 이에 본고는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마침표, 쉼표, 기타 종결부호, 단어수(ST의 경우 어절수)를 MS워드 프로그램에서 확인, 산출하였고, 문장수는 마침표와 기타 종결부호의 합산으로 제시하였다. 평균문장길이는 단어수를 문장수로 나누어 계산했다. 코퍼스가 대규모일 때는 이러한 수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영향이 없는 미세한 오차는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18) 최희경(2023)의 코퍼스 연구에 따르면 「소나기」의 평균문장길이는 29개의 한국 소설 텍스트 중 두 번째로 짧았다(p. 196).

the edge, that crossed the brook.

TT_Poitras: Yesterday she had stayed at the edge of the stream, but today she was sitting right in the middle of the stepping-stones.

<예시 15>

ST: “저게 뭐니?”

TT_Chang: ‘What’s over there?’ the girl asked, pointing to a rugged thatched platform atop four tall poles, a ladder leading to it.

TT_Poitras: “What’s that?”

<예시 14>의 TT_Chang에서 번역가는 ‘but’으로 문장을 연결한 후 명사적 번역을 위한 전치사구를 삽입함으로써 상당히 긴 문장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명사화와 삽입구를 위한 쉼표 사용은 TT_Chang에서 자주 발견되며, 평균문장길이를 늘이는 데 일조한다. 명사화는 번역 전략으로서 유효하지만, 소나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초점화자인 소년의 시선을 통해 제한적 정보를 제공하는 문체를 구사하므로, 특히 <예시 15>와 같이 쉼표를 통해 명사화 어구를 추가하는 전략은 형식적으로는 문장 레이아웃에, 미학적으로는 서정적 문체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쉼표의 사용은 문장 내적인 측면에서도 시각적 효과를 준다. 황순원은 짧은 문장으로 속도감과 생동감을 주는 문체를 구사하는 한편, 긴 문장을 쓸 때도 단어 반복이나 쉼표 사용을 통해 일종의 리듬감을 생성하여 독자가 지루함 없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임종수, 2000, p. 167). 이때 쉼표는 점유한 절대적 폭만큼 글자 간에 확장된 공간감을 실현한다. <예시 16>을 살펴보자.

<예시 16>

ST: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TT_Chang: He felt dizzy. He gazed at the eagle circling over him and realized that that was why the sky was spinning and why he was getting dizzy.

TT_Poitras: He was dizzy. It was because of that eagle, that eagle, that eagle circling up there in the sky.

ST에서 쉼표로 연결된 반복 어구는 TT_Poitras에서 잘 구현되어 문장의 활력과 공간감이 유지된다. 반면 TT_Chang에서는 반복과 쉼표 없이 긴 설명이 추가되어 문장의 길이와 공간감에 차이가 발생한다.

4.3.2 단락 레이아웃

단락 레이아웃 분석에서는 실제 시각적 효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출판된 텍스트를 직접 이미지로 첨부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세 텍스트에 대해 모두 스캔 및 광학문자인식(OCR) 후 같은 배율(100%)로 실행하고 분석 내용(노란색 강조)과 주변부를 캡처했다.

그림 2
도입부의 단락 구성 및 밀도 비교

ST	TT_Chang	TT_Poitras
<p>벌써 버릴때 소녀는 학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있다. 그런데 아재까치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p> <p>소년은 개울쪽에 앉아버렸다. 소년이 피가름 기다리자는 것이다.</p> <p>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년이 길을 피해주었다.</p> <p>다음 날은 또 개울가로 나왔다.</p> <p>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p>	<p>She had played with the water there for some days on her way home from school. Until the previous day she had always squatted at the edge of the brook, but today she was squatting on one of the stepping stones, near the edge, that crossed the brook.</p> <p>The boy sat on the bank waiting for her to step back to the edge of the brook so that he could walk across the stones to the other side. By chance a man approached, and when the girl stepped back to make way for him the boy followed him across.</p> <p>The following day the boy showed up at the bank a little later than usual. But again she was squatting on the stepping stone in the middle of the brook. This time, though, she was not playing with the water but was washing her face with it. She had rolled up the sleeves of her pink sweater, exposing the</p>	<p>The girl had been stopping by the stream like this for several days on her way home from school. Yesterday she had stayed at the edge of the stream, but today she was sitting right in the middle of the stepping stones.</p> <p>The boy sat down on the dike beside the stream. He thought he would pinch until the girl had to move aside to let someone pass.</p> <p>It happened that someone did come along and the girl moved away to the person cross.</p> <p>The next day he went to the stream a little later. This time the girl was washing her face and hands as she sat at the middle of the stepping stones. She had pushed up the sleeves of her pink sweater, and her arms and neck looked especially fat.</p>

<그림 2>는 「소나기」 ST 기준으로 도입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단락을 나란히 캡처한 것이다. 한눈에 보아도 ST와 TT의 텍스트 밀도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번역을 하면서 명시화 등의 원인으로 텍스트 양이 늘어난 점과 문자와 서체, 글자 크기 및 간격 등 타이포그래피가 다른 점도 영향이 있지만, 줄 간격과 단락의 구성 차이도 분명히 드러난다. ST에서 세 번째 단락 이후 넓은 간격을 둔 부분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부분으로 두 TT에서도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ST는 단락 5개, 두 TT는 각각 3개, 4개로 단락의 구성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의 단락당 문장수/단어수/글자수를 비교해 보면¹⁹⁾

19) MS워드 프로그램에서 계산했으며 글자수는 공백을 제외한 것이다. 세 지표의 비교는 실질적으로 동일 언어인 TT 간에만 유의하다.

ST(1.3/7.3/22.3), TT_Chang(1.5/33/127), TT_Poitras(1.3/18/72)로 두 TT 중 특히 TT_Chang의 밀도가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황순원 특유의 문체인 일문일단락(2회)은 TT_Chang에서 전혀 구현되지 못했다. 시각적으로 ST는 2-3-4 단락이 풍부한 여백으로 인해 시적 효과를 보이지만, TT_Chang의 경우 이러한 형태적 문체가 주는 효과가 거의 상실된다. 결과적으로 번역가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작가의 단락 레이아웃 문체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 문체를 형성하게 된다. TT_Poitras의 경우 TT_Chang에 비해 밀도가 낮고 일문일단락도 일부 구현하는 등 상대적으로 공간감이 있다는 점에서 번역가에 따른 레이아웃 문체 차이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이탤릭체의 사용을 화법과 연계해 논의했던 것처럼 그래플로지 요소들은 다른 언어 층위의 문체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아래 <그림 3>은 텍스트 층위에서 독자와의 교감에 영향을 주는 레이아웃의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3
단락 레이아웃 비교

ST	TT_Chang	TT_Poitras
<p>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훌 일어나 팔뚝땀에 질질다리를 뒀어 건너건다.</p> <p>다 건너가더니 왜 이리로 돌아서며, ‘오! 부끄러워!’</p> <p>조약돌이 날아왔다.</p> <p>소년은 여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p> <p>단발머리를 흔들거리며 소나가 막 달린다. 길발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물흔</p>	<p>appearance she would not budge until someone came along, as on the previous day.</p> <p>Then she picked up something from the bottom of the stream. It was a white pebble. She rose to her feet, pebble in hand, and hopped across the stones to the other side of the brook. She then turned toward the boy and threw the stone in his direction, shouting, ‘You silly boy!’</p> <p>Instinctively the boy stiffened. The girl fled, her short hair bouncing behind her. She followed a path into the clump of tall reeds along the bank and disappeared. The tips of the swaying reeds shone radiantly in the autumn sunlight.</p>	<p>After a while the girl took something out of the water. It was a small white stone. She jumped up and ran springing over the stones to the other side.</p> <p>As soon as she was all the way across, she spun around, and facing the stream she said, ‘Dummy!’</p> <p>The little stone flew through the air.</p> <p>The boy stood right up without realizing what he was doing.</p> <p>The girl ran hard, with her loose, short hair flying. She ran to the path between the reed fields. He could see only the shimmering reed tassels in the crisp autumn sunlight. Then it was time for the girl to appear at the far end of the reed fields. It seemed to him that a long time had already passed. Still the girl did not appear. He stood on tiptoe and looked again.</p>

ST에서는 앞선 예시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여백과 짧은 문장이 돋보인다. 황순원은 잦은 일어문(이용남, 1996, p. 432)을 통해 독자가 맥락을 살피며 작품 속에서 상상하고 몰입하도록 유도하고, 논리적 흐름이 아니라 상황 중심으로 단락 전환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장면과 사건에 정서적인 분위기를 부여한다(p. 442). 또한 대화문을 마치 시의 행처럼 한 줄씩 짧게 나열하면서 들여쓰기로 인한 공간감을 배가한다. 이는 텍스트의 레이아웃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전체적인 레이아웃 설계 덕분에 독자는 편안하게 소설 속으로 들어가 서정적 장면과 인물의 내면에 빠져드는 기회를 가질 수 있

다. 두 TT에서는 ST의 영향으로 단락이 나뉠 때도 있지만, 특히 TT_Chang의 경우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처럼 장면의 연상에 영향을 줄 만큼 공간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4.4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와 두 영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그레폴로지 문체 요소가 번역 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두 번역에서는 원문에 나타나는 그레폴로지 요소들이 미묘하게 또는 확연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독자의 수용과 문체적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원문에 없던 이탤릭체 사용은 TT_Poitras에서 인물의 내적 독백이나 시점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문체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이는 독자가 시점 변화나 내적 독백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원문에서 추구하는 독자의 몰입과 서정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다. TT_Chang에서는 이탤릭체가 특정 고유어의 표기에 사용돼 해당 표현을 전경화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둘째, 문장부호 사용의 차이에서는 번역가의 해석적 선택이 드러났다. TT_Poitras에서는 원문보다 훨씬 많은 느낌표가 사용되어 소년과 소녀의 감정이 강화되었다. TT_Chang의 경우 빈번한 쉼표와 하이픈 사용으로 문장이 길어지고 어휘가 복잡해져 독자에게 더 설명적인 문체가 되었다. 줄임표는 두 번역 모두에서 원문에 비해 크게 줄어 생략과 휴지를 통한 정서적 흐름의 표현이 약화되었다.

셋째, 텍스트 레이아웃에서도 원문과 번역 간, 그리고 두 번역 간 시각적 문체 차이가 잘 드러났다. 원문의 일어문, 일문일단락, 시적 여백은 작품의 서정성과 독자의 몰입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TT_Poitras와 TT_Chang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백이 줄고 텍스트 밀도가 높아지면서 원문이 주는 시각적, 정서적 효과가 일부 손실되었다.

위와 같이 본고에서는 그레폴로지 분석틀을 기반으로 한 문체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원문의 문학적, 미학적 의도와 두 번역에 나타난 재현과 변이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두 번역의 그레폴로지 문체 번역이 독자에게 미치

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또한 본고의 분석을 통해 그래폴로지 문체론이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의 번역 문체와 번역가 문체를 고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저명 번역가 안선재(Brother Anthony)의 「소나기」 번역 「A Shower」에 대해 일부 그래폴로지 요소를 분석해본 결과,²⁰⁾ 그는 원문의 줄임표를 그대로 살리고, 원문에 없는 영어식 문장부호 콜론을 사용하며, 짧은 평균문장길이를 보이는 등 다른 두 번역가와는 차별화된 고유의 그래폴로지 문체를 보였다. 이처럼 번역 문체 연구에 대한 그래폴로지 문체론의 적용은 원문 문체의 번역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번역가의 문체라는 연구 관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접근방식임을 재확인하였다.

앞서 그래폴로지 문체 요소가 다른 언어 층위의 문체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과 이에 대비한 그래폴로지 설계를 논한 바 있다. 이는 역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다. 가령 화법 문체의 번역이 도착언어의 그래폴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이에 수반되는 시각적, 규범적 효과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번역가는 원문 문체에 자신의 문체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덧입힐 수 있으나, 자신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빚어내는 번역의 그래폴로지 문체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고는 소설 번역에서 그래폴로지 문체 요소가 텍스트의 의미적, 미학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번역 텍스트의 수용과 해석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특정 사례 연구라는 일반화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그래폴로지 요소가 원문의 서정성과 시각적 효과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체 요소이며, 번역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

20) 안선재의 번역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텍스트의 매체가 다르므로 동등한 비교와 논의가 어렵다.

다. 번역 텍스트의 그래폴로지 요소가 작가 의도와 독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그래폴로지 문체 연구가 소설 번역 연구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래폴로지 문체 번역에 대한 실제 독자 반응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후속연구로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래폴로지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래폴로지 요소의 선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번역 교육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폴로지 요소의 효과를 이해하고 번역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훈련은 예비 번역가의 문체적 감각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텍스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분석되던 그래폴로지 요소를 한데 모아 개괄하고 소설 번역 문체 분석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래폴로지 문체는 번역을 매개로 다양하고 새로운 문학적 해석을 독자에게 선사할 수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기 힘든 번역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폴로지 문체론적 접근이 향후 소설 번역의 문체 연구, 나아가 일반 번역 텍스트 연구의 방법론적 저변을 확대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황순원. (2010). 「소나기」. 김종희. (편), 황순원 단편집 (pp. 63-79). 지식은만드는지식.
- Chang, W. (1995). Shower. In C. Chung (Ed.), *Modern Korean literature* (pp. 9-19). Kegan Paul International.
- Poitras, E. W. (2020). The cloudburst. In Y. Kwon & B. Fulton (Eds.), *What is Korean Literature?* (pp. 184-192).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2차 자료>

- 국립국어원. (2014). 문장 부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46&etc_seq=430&pageIndex=7
- 국립수목원. (n.d.). 마타리.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국립수목원. 2024. 10. 24. 검색, <http://www.nature.go.kr/kbi/plant/pilbk/selectPlantPilbkDtl.do?plantPilbkNo=27951>
- 권영민. (2006).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태학사.
- 김남영. (2003). 황순원의 소년 주인공 단편소설 고찰 — 「황소들」, 「소나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1), 67-82.
- 김도훈. (2011). 영어 문장부호 Semicolon(;)의 기능 및 영한 번역 전략. 통역과 번역, 13(1), 17-36.
- 김지영. (2020). EBS 수능 연계교재의 영한 번역 양상 고찰: 문장 분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1), 61-86.
- 문화라. (2002). 1950년대 서정소설 연구: 황순원, 오영수, 이범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우한용. (2007). 소설 문체론의 방법 탐구를 위한 물음들. 현대소설연구, 33, 7-30.
- 이상빈. (2021). 마살 필의 단편소설 번역에 나타난 문체적 특징과 한국문학 번역에의 교훈: 다른 번역본과의 비교를 통해. 번역학연구, 22(2), 149-184.
- 이용남. (1996). 황순원 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116, 423-443.
- 이주은. (2019). 자막 양태로서의 문장부호 기능 — “수상한 그녀” 자막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3), 149-170.
- 임중수. (2000). 황순원 소설의 문체 고찰. 현대소설연구, 13, 155-171.
- 최희경. (2022). 뉴스 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문장부호의 번역 — 한영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4), 175-209.
- 최희경. (2023). 황순원 단편소설을 영역한 두 번역가에 대한 계량문체론적 연구. 통역과 번역, 25(1), 185-214.
- 한국연구재단. (n.d.). graphology.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한국연구재단. 2024.

10. 2. 검색,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TotalSearList.kci>
한미애. (2010). 황순원 소설의 문체번역 가능성 — 「소나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1), 293-310.
- 한현희. (2017). 한노 번역문에 나타난 학생들의 문장 부호 오류 유형 및 교
육적 개선 방향. 통번역학연구, 21(4), 201-238.
- Boase-Beier, J. (2023). Stylistics and translation. In M. Burke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stylistics* (2nd ed., pp. 393-407). Routledge.
- Burke, M. (2023). Introduction. In M. Burke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stylistics* (2nd ed., pp. 1-8). Routledge.
- Garner, B. A. (2016). *Garner's modern English usage*. Oxford University Press.
- Gómez-Jiménez, E. (2015). An introduction to graphology: Definiti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levels of analysis. *Miscelánea*, 51, 71-85.
- Jones, R. H. (2014). Advertising culture. In P. Stockwell & S. Whitele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stylistics (pp. 520-53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ch, G. (1980). *A linguistic guide to English poetry*. Longman.
- Leech, G., & Short, M. (2007). *Style in fiction* (2nd ed.). Pearson Longman.
- Lennard, J. (2005). *The poetry handbook*. Oxford University Press.
- Levenston, E. (1992). *The stuff of literature: Physical aspects of texts and their
relation to literary meani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Nørgaard, N. (2009). The semiotics of typography in literary texts: A
multimodal approach. *Orbis Litterarum*, 64(2), 141-160.
- Rodríguez-Castro, M. (2011). Translationese and punctuation: An empirical study
of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international newspaper articles (English
and Spanish). *The Information Society*, 6(1), 40-61.
- Schopp, J. F. (2008). In Gutenbergs Fußstapfen: Translatio typographica Zum
Verhältnis von Typografie und Translation [In Gutenberg's footsteps: The
relationship between typography and translation]. *Meta*, 53(1), 167-183.
- Short, M. (2014). Analysing dialogue. In P. Stockwell & S. Whitele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stylistics (pp. 344-359). Cambridge University

- Press.
- Shuttleworth, M. (2014).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Taylor & Francis Group.
- Simpson, P. (2004). *Stylistics: A resource book for students*. Routledge.
- Sveshnikova, M. I., & Sernova, E. I. (2021). Features of the transmission of punctuation marks in the translation of poetic texts from Russian into French. *Humanitarian Researches*, 79, 65-71.
- Swan, M. (2016). *Practical English usage*. Oxford University Press.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d.). Italics. *The Chicago manual of style online*. Retrieved October 23, 2024, from <https://www.chicagomanualofstyle.org/home.html>
- Toolan, M. (2014). The theory and philosophy of stylistics. In P. Stockwell & S. Whitele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stylistics* (pp. 13-3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es, K. (2011). *A dictionary of stylistics*. Longman Linguistics.

Translating style through graphology: A comparative analysis of Hwang Sun-won's *Sonagi* and its translations

Heekyung Choi (trans.hufs@gmail.com)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tion of graphological stylistics in the study of translation style, focusing on Hwang Sun-won's short story *Sonagi* and its two English translations. *Sonagi* reflects Hwang's lyrical and concise style through distinctive graphological features that are key to its poetic and aesthetic imp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hese features are translated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readers' interpretive and stylistic experiences. Using a comparative framework, the analysis reveals variations in the graphological strategies employed in the translations, particularly in the use of typography, punctuation, and text layout. These differences subtly shape the stylistic tone and reader engagement, either preserving or altering aspects of the source text's unique qualities. While some graphological elements retain the original's aesthetic and literary nuances, others are adapted or omitted, reflecting the translators' stylistic choices and the norms of the target language. The findings suggest that graphological stylistics provides a valuable lens for understanding how visual and physical elements influence the reception of translated literary texts.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graphological awareness into translator training to enhance creativity and fidelity in literary translations. Ultimately, the study underscores graphological stylistics as an essential yet underexplored area in translation studies.

Keywords: Graphology; fiction; translation style; typography; punctuation; text layout

키워드: 그래폴로지, 소설, 번역 문체, 타이포그래피, 문장부호, 텍스트 레이아웃

최희경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부교수

trans.hufs@gmail.com

논문 투고일: 2024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2월 14일